



세 가지 우문(愚問)과 한 가지 현답(賢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이라는 뜻의 이 사자성어를 최근 어떤 정치인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로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섬부(贍富)한 지식과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의 부족을 채워 주는 현명한 답을 한다. 그러한 스승을 모신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표 1 참조). 그분들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배운 후 어떠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게 될지를 예상하고 그것들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답도 알려 주었다. 우문에 현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의 우문들까지 드러내 주면서 그에 대한 현답을 제시하는 것이다.¹⁾

제4주일에는 9문에서 11문까지 총 세 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각각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9문),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지는 않겠습니까?’ (10문),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11문)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지만 요점은 하나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므로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6세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요리문답에서 요약한 대로 성경의 교훈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1 F. Klooster, *Our Only Comfort* (Faith Alive, 2001), p. 127.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리핀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우문 1 -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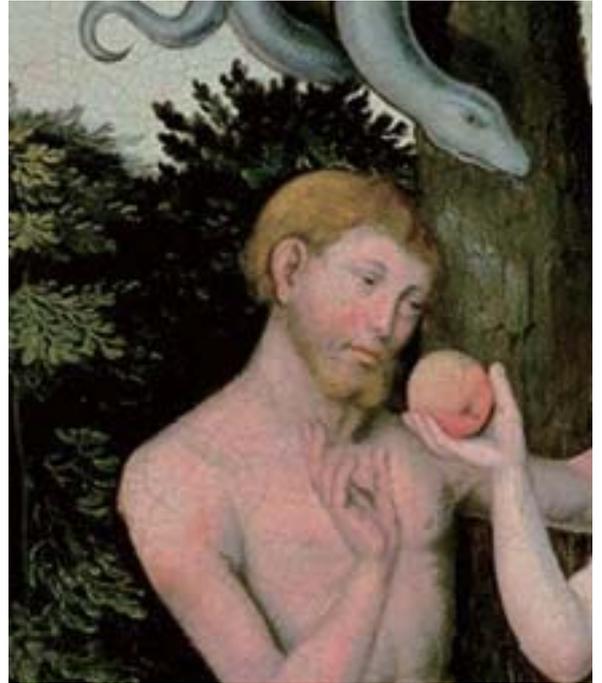
고의(故意)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8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9문처럼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는 요구가 부당하지 않은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것이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현실에서 나온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은 선한 창조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창조주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름답고 선한 일이었다. 동산의 많은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밑에 있음을 스스로 나타내며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고귀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명령이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 (루카스 크라나흐, 1526년)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탄이 거짓말로 시험하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꾀에 넘어간 것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으므로 그들의 책임이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조하면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리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사탄의 종 되었던 데에서 구원하셨다. 반면에 첫째 아담은 풍요로운 가운데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로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문 2 -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지는 않겠습니까?

이어서 10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지는 않는가’ 하고 묻는다. 이 세상에서 공의가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고 답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공의를 굽히거나 양보하지 않으시며,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지나치시는 일이 없다.

‘원죄’의 교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다. 많은 이들이 이 원죄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것이 논리적인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원죄를 인정할 수 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악 중에 있었음을 고백했다(시 51:4-5).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못한다. ‘원죄’는 논리적인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깊이를 바로 알 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이미 ‘현세’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좇아 나타난다(롬 1:18).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버려두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 중의 하나이다(롬 1:24, 26, 28).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시 125:5) 하시는 것도 중요한 심판인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죄인이 겪는 마음의 고통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뿐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다. 불로 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영히 쫓겨난 상태에 처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살후 1:9). 불로 심판을 받는 그곳은 “바깥 어두운 데”이다(마 25:30, 41; 계 20:10, 15). 현재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심판이고, 장차 바깥 어두운 곳에 떨어져 영영히 있게 되는 것도 심판이다.

| 신학 교수 | 교회의 감독들 | 당회원 | 기타 (정치인) |
|---|---|---|---------------------------|
|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임마누엘 트레멜리우스 페트루스 보퀴누스 |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 요한네스 벨바누스 요한네스 실바누스 요한네스 아이젠멩거 |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 아담 노이저 페트루스 마케로포에우스 틸레만 무미우스 요한네스 브루너 미카엘 딜러 |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토마스 에라스투스 |

〈표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회의 위원 명단²⁾

우문 3 -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셋째 질문은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이다.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에 서만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말하자면 ‘값싼 은혜’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야단맞는 일만은 피해 보려고 변덕을 부리면서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또한 가인이 “내 죄벌(罪罰)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창 4:13) 하면서 형벌을 피하려던 태도와도 비슷하다. 셋째 질문 역시 자비와 의를 대립시키는 것으로,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과 의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사랑이 없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의를 건너뛰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대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11문답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거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고 답한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온전히 쏟으신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곳에서 성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쳤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그 자리는 또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현답 - 죄는 하나님의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영원한 형벌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죄에 대한 형벌을 가르치는 제11문의 답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1답: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죄의 경중은 달라진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먹질하는 것도 나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은 사안이 달라진다. 사람의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엄위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사람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11문에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죄의 깊이를 깨달은 후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 하

2 <http://www.heidelberg-catechism.com/ko/history/?s=67>



〈위〉밤에 본 하이델베르크 고성(古城)
〈아래〉하이델베르크 구 대학 홀 (가장 오래된 건물의 하나임)

고 고백하기에 이른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깨달은 것이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 죄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문제이다.

현문우답(賢問愚答)?

범죄한 아담은 자기의 죄에 대해 추궁당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라고 대답했다. 자기가 지은 죄의 책

임을 하와에게 돌렸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특성이다. 4주일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죄인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내 놓고 가르친다. 어려운 문제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죄에 대해 가르친다. 제1부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우리의 눈에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짓는 것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심판임을 가르친다.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하여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들었다. 그런데 죄를 경시하는 현대의 사조는 이와 같은 바른 답에 다시금 자신들의 ‘어리석은 답’을 내놓는 일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은 현문우답을 하는 것이 아닐까? 🔄